

KCC, 인테리어용 필름 브랜드 통합

KCC(대표 정몽진·정몽익)가 인테리어 필름 브랜드를 통합한다.

KCC는 <센스필름>과 <비센티> 2가지 브랜드로 운영해오던 인테리어 필름을 통합 브랜드 <비센티(VICENTI)>로 운영키로 했다고 5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센스필름의 브랜드는 인테리어필름 비센티로 변경된다.

센스필름은 주로 상업공간에 점착 기능을 가진 시판용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주거공간에 사용되는 비센티는 건설기업에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KCC는 브랜드 통합에 따라 인테리어 필름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확보하고, 2개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1/05/17>